

**영덕관광문화재단**은 2018년 재단 법인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일상을 문화로, 맑은 문화도시 영덕'을 비전 삼고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트렌드를 선도하는 영덕형 관광 및 로컬의 특색이 결합된 축제가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광특화사업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성, 전문성, 창의성을 선도하는 영덕관광문화재단은 영덕의 문화 예술 관광 진흥과 문화 복지를 책임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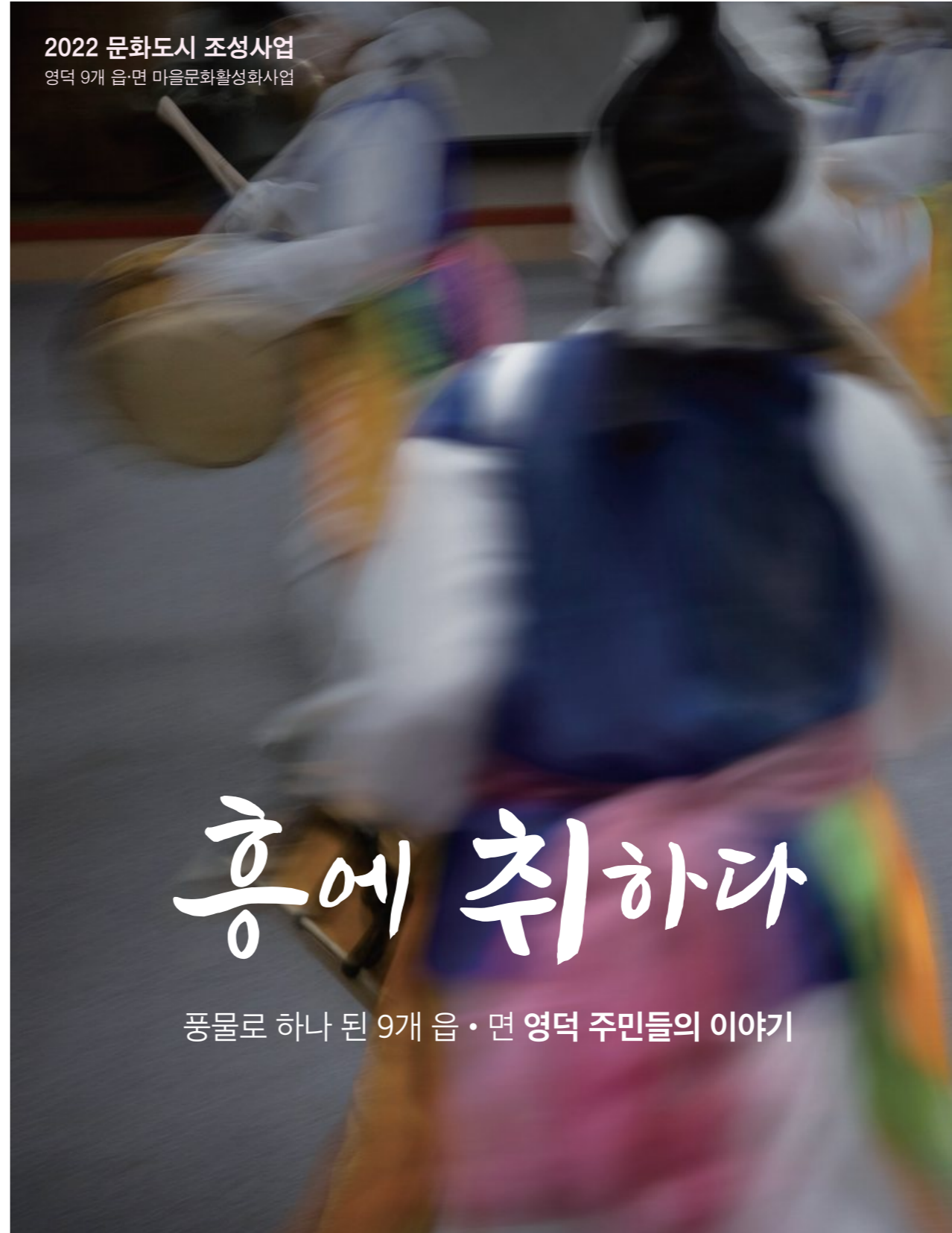


2022 문화도시 조성사업  
영덕 9개 읍·면 마을문화활성화사업

홍예 취하다

풍물로 하나 된 9개 읍·면 영덕 주민들의 이야기

2022 문화도시 조성사업  
영덕 9개 읍·면 마을문화활성화사업



# 홍예 취하다

풍물로 하나 된 9개 읍·면 영덕 주민들의 이야기



9개 읍·면의 스토리텔링을 위해 모이고  
대형 인형을 제작했던 과정들,  
반년 이상 매주 꾸준히 진행되었던  
마을 풍물단의 수업 과정들  
그 사이 사이 이루어진 크고 작은 일들.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모두가  
영덕에 살고 있는 이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빚어낸  
주옥 같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주민들이었다.

『에필로그』 중에서



# 흥에 취하다

풍물로 하나 된 9개 읍·면 영덕 주민들의 이야기





## 목차

story 1 **시작은 우리에게** | 사업 목적, 세부내용 | · 10

story 2 **나에서 우리로** | 9개 읍·면 마을 풍물단 소개 및 연습 과정 | · 16

story 3 **작은 것들이 모여 중심을 이룰 때** | 회의 그리고 다양한 특강 | · 58

story 4 **가치를 더하는 작업들** | 이그나이터 페스타 참여 인형 제작 과정 | · 66

story 5 **축제로 어우러지다** | 기원제와 퍼레이드 | · 76

story 6 **에필로그, 너머를 보다** · 96







story 1

시작은 우리에게





## 사업목적

영덕군 9개 읍·면 대상으로 문화 원형 자산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각색을 통해 마을 축제와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는 문화도시 마을문화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번 사업은 9개 읍·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물단 활동을 지원하고 읍·면의 대표적인 스토리를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 한 후 문화 원형 축제인 '이그나이터 페스타' 글로벌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였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마을 단위의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영덕 9개 읍·면의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줄 이야기를 발굴하는데 있었다. 이를 통해 얻은 이야기를 예술로 형상화 하는 과정에서 문화로 행복을 체험하고 마을 리더를 발굴하는 것까지 연결하고자 했다. 또한 마을에 숨어 있는 원형의 콘텐츠를 글로벌 축제로 연계하고 상설로 운영되는 마을 풍물패를 지원하여 마을별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 세부내용

### 1. 스토리텔링 창작 작품 제작

9개 읍·면 별로 주민들이 화합하여 마을 이야기를 춤과 음악, 타악, 극화 등 재미를 결합한 주민 창작물로 제작하고 그 중 대표적인 스토리를 움직이는 대형 인형으로 형상화했다. 그리고 스토리에 맞는 의상과 소품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작되었다.

### 2. 풍물단 활동 지원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등 마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풍물을 익히고 민요와 몸짓을 배우면서 풍물의 놀이성을 강조한 마을 놀이단을 추진했다. 9개 읍·면의 풍물단을 연중 상설로 운영하며 강습회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 3. 문화 원형 축제 '이그나이터 페스타'

영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축제를 세계의 축제 속에서 벤치마킹 하고자 축제 본연의 의미를 반영해 성공한 축제들을 알아보았다. 이후 영덕 주민들이 주인공이 된 영덕의 이야기가 발굴되었고 전문 연출가와 퍼포먼스 단체가 참여, 주민들과 함께 공동작업으로 움직이는 대형 인형을 제작했다. 축제에 필요한 작은 소품이나 의상도 주민들이 직접 만들며 누구나에게 열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story 2

나에서 우리로





## 9개 읍·면 마을 풍물단 소개



병곡, 달산, 지품, 남정, 축산, 영해, 창수, 강구, 영덕까지 9개 읍과 면에 마을 풍물단이 꾸러졌다. 이 9곳의 마을 풍물단을 위해 전국에서 날고 긴다는 풍물 강사들이 영덕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바로 김나영, 정준호, 이현석, 방영식, 김도연 강사이다. 이들은 풍물단 강사이기 이전에 내로라하는 풍물꾼들이었다. 퍼레이드 총 감독이자 영해면과 강구면 마을 풍물단을 맡은 방영식 강사를 필두로 김나영 강사는 병곡면과 지품면을, 정준호 강사는 달산면과 남정면을, 이현석 감독은 축산면과 창수면을, 그리고 김도연 강사는 영덕읍을 맡아 순조롭게 마을 풍물단 활동이 시작되었다.





마을 풍물단은 각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4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했다.

각 마을 풍물단은 마을회관이나 사무실에 거점을 두고 매주 1회 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했다. 병곡면 권오수 단장을 필두로 총 28명의 회원이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병곡면사무소로 모였고, 지품면은 배호경 단장을 선두로 모두 23명의 회원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지품면사무소에서, 그리고 축산면은 김위숙 단장과 함께 20명의 회원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업을 진행했다. 영해면은 백진옥 단장과 30명의 회원들이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였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영덕읍 풍물단 25명의 회원들이 박인숙 단장을 필두로 모여 영덕문화체육센터 대강당에서 수업을 했다. 박오수 단장을 선두에 둔 강구면 풍물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7명의 회원들이 강구면 사무소에 모여 연습을 했다. 창수면 풍물단 19명의 회원들은 성종녀 단장을 선두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달산면 풍물단 22명의 회원들은 남성복 단장과 함께 매주 화요일 수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9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풍물단은 6월부터 12월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풍물을 매개로 만나왔다.

## 풍물단 연습 과정

# 강구

6월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 강구면사무소에서 강구 풍물단 회원들의 첫 수업이 이루어졌다.

첫 수업은 프로그램 설명과 서로 간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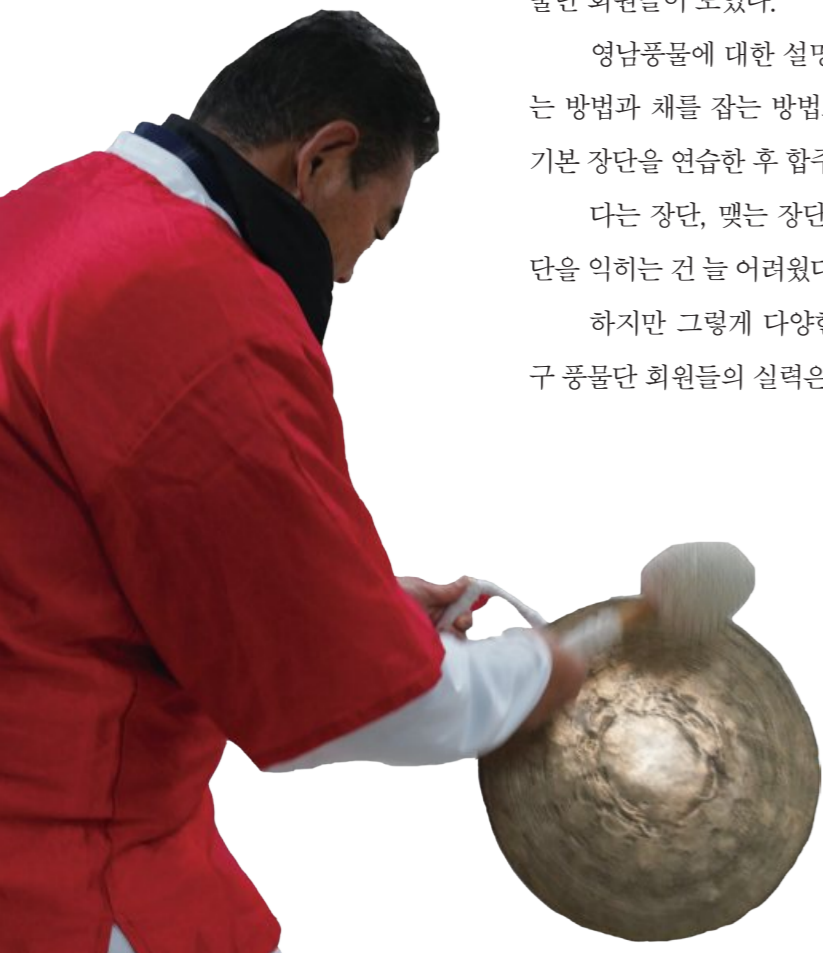
곳거리 장단에 맞춘 뱃노래 한마당과 자진모리부터 휘모리까지의 난장으로 첫 수업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강구면사무소에 풍물단 회원들이 모였다.

영남풍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과 채를 잡는 방법도 배웠고, 악기별 휘모리 기본 장단을 연습한 후 합주도 진행해보았다.

다는 장단, 맺는 장단, 푸는 장단 등 새로운 장단을 익히는 건 늘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장단을 배우는 사이 강구 풍물단 회원들의 실력은 차츰 늘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며 길군악 기초장단과 덧뵈기 장단, 덧배김 장단을 연습했고 내고 달고 맺는 장단의 흥을 알아가는 사이 여름이 절정에 이르렀다.

어느새 가을이 왔고 그동안 배운 장단을 연습하며 변형 장단도 익혔다.

더 나아가 농악의 내는 장단과 다는 장단을 배우며 치배 구성과 순서 배치도 배웠다.

점차 전체가 하나되는 합주가 진행되었다.

치배를 나누고 몸짓을 하며 연주를 했고 휘모리에서 자진모리 다시 휘모리로 연결되는 전체 합주에 힘을 실었다.

그렇게 겨울의 끝자락에 길놀이 연주를 하며 관놀음과 파트별 악기 연주에 마지막 힘을 쏟았다.



# 병곡

7월 4일, 김나영 강사와 함께 병곡면사무소에 24명의 풍물단 회원이 모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휘모리 장단 익히기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풍물단 회원들은 한 팀으로 뭉쳤다.

회원들에게는 아직 낯선 길군악의 기본 장단과 사물놀이 연주를 배우며 찬찬히 풍물에 대한 감을 익혀나갔다. 그러는 동안 사물악기 타법과 길군악 변형 연주도 체득했다. 기본 장단 복습과 합주도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풍물이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뤄내야 한다는 걸 알기에 회원들은 서로 힘을 북돋우고 격려하며 신명을 냈다. 사물놀이 합주를 하며 뜨거운 여름이 다 지나갔다. 이후 선반 악기 때는 법과 타법, 호흡, 동선 등을 익혔고 다양한 장단에 맞춰 합주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는 동안 가을이 지났고 한창 일손 바쁜 김장철도 풍물단 연습과 함께 지나갔다.







# 축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축산면사무소는 힘찬 풍물소리로 들썩인다. 바로 이현석 강사와 회원들의 풍물단 연습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일찍 여름이 찾아왔던 6월 말, 축산면 마을 풍물단은 장구의 기본 장단을 익히며 출발했다. 축산에서는 영남 사물놀이 길군악 장단을 배우고 복습하며 한 달 이상 기본기를 다졌다. 이후 가을 즈음 개별 악기 연습과 사물놀이 합주가 이어졌다. 영남 사물놀이는 길군악, 반길군악, 다드래기, 맺음 장단 등 연습할 분량이 상당했음에도 회원들은 지치는 기색 없이 흥에 취했다. 그렇게 다양한 장단을 연습하며 풍물 자진모리, 휘모리도 함께 익혔다.

어느 수업이든 기본이 탄탄해야 실력이 느는 법. 축산 풍물단 강사가 가장 중시한 건 기본기였다. 그 기본을 다지기 위한 연습과 복습이 반복되며 세 계절이 흘러갔다.





이 불우시타 영덕!

# 영덕



7월 14일, 영덕체육관에 뜨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바로 김도연 강사가 이끄는 영덕읍 마을 풍물단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30명 남짓한 회원들이 영덕체육관 안에 들어서서 쟁과리와 장구 장단을 익히며 서로의 얼굴도 익혀갔다.



매주 목요일 오후 회원들은 김도연 강사의 호흡에 맞춰 쟁과리 신호 장단과 자진 정저굿 장단을 배우고 연풍대 동작도 익히며 한여름을 났다. 장단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일반인들에겐 쉽지 않은 터라, 장단을 익힐 때는 이론과 실습을 번갈아 진행해 풍물단 회원들의 이해도와 만족감을 높였다.



그렇게 가을이 왔고 느낌을 살려 장단을 연주하고 호흡을 맞추며 동작을 익혀 나갔다. 그리고 팽과리 뿐 아니라 소고도 배우며 덩적곳에서 반죽곳까지 이름도 낯선 풍물의 다양한 기술들을 체득했다. 그러면서 전체 판굿을 연습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영덕 마을 풍물단의 웃음소리가 거울을 따뜻하게 달구었다.



# 영해

방영식 강사가 맡은 영해 마을 풍물단은 6월 22일 처음 만났다.

첫 수업에서 경상도의 영남풍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악기 별로 연주 방법과 채 잡는 법 등 기초적인 지식들을 익혔다. 이후 매주 수요일 저녁 30명 남짓한 회원들은 영해면사무소에 모여 영해 마을 이야기를 왈차지껄하게 나누고, 풍물단 연습을 하며 한 주 간 놀리놓았던 흥도 다 쏟아냈다.

매주 악기별 휘모리 기본 장단을 연습하고 합주를 반복하며 자진모리로 도입 장단, 연결 장단을 익혔다. 그렇게 '내고 달고 맺고 푸는' 장단으로 여름 한철이 다 갔다.



가을 즈음 농악진법과 자진모리에서 휘모리로 넘어가는 연결 장단까지 익혔고 장구를 메고 걸으며 연주하는 방식도 시도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영해 마을 풍물단은 뚝뚝 뚫렸다. 어려울 때 더 단합하는 것이 바로 마을 주민들의 저력이 아니던가. 10월부터 시작된 복습 시간에 휘모리 장단을 전체적으로 맞추고 관놀음 발놀음을 하며 파트별 악기를 연주해보았다. 길놀이 연주를 뜨겁게 연습하는 사이 추운 겨울도 어느새 다 갔다.





# 지품

6월 지품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번 마을 풍물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악기의 타법을 익히며 낯선 첫 자리가 무르익어갔다. 그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김나영 강사와 20명의 지품 마을 풍물단 회원들이 지품면사무소에 모였다.





치배를 나누어 각 사물의 장단을 익히고 사물악기로 합주를 하며 마음도 풀고 몸도 풀었다. 장구 타법을 익히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강사의 능수능란한 가르침에 발맞춰 지품 마을 풍물단은 휘모리 장구 장단과 길군악 합주까지 찬찬히 배워나갔다. 알아야 재미있고 재미있어야 신나지 않던가. 수업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배움의 진척도는 빨라졌다. 그러면서도 기본기 다지기를 위한 장단 복습은 매 회차마다 빠질 수 없는 내용이었다. 휘모리 길군악 합주와 길군악 변형 장단 합주를 반복하며 여름이 마무리 되고 있었다. 이후 9월에 접어들자 반길군악 넘김채도 알아보며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악기를 메고 장단을 연주하며 걸어보기도 하고 타법과 호흡도 동시에 익혔다. 이제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바라만 봐도 흥이 났다.

# 창수

이현석 강사가 맡은 창수 마을 풍물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창수면사무소에서 풍물을 익혔다. 먼저 장구의 기본 장단을 배우고 영남 사물놀이 길군악에 대해 알아갔다. 기본을 익히는 건 늘 그렇듯 재미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처음 장구와 풍물 악기를 접한 어르신 회원들은 아이처럼 신이 났다. 그렇게 여름이 다 가도록 장구의 기본을 연습하며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을 익혀나갔다. 그리고 영덕 전역이 가을에 물들어 갈 즈음 사물 합주를 시작했다. 사물 합주를 시작하면서 오방진 11자진 등 진풀이 연습도 함께 했다. 기본에 충실한 연습 속에 창수 마을 풍물단의 겨울이 깊어갔다.





# 달산

화요일, 차가운 바람이 부는 저녁임에도 면사무소 2층 풍물 연습장은 들어서기도 전에 열기가 후끈하다. 실내에는 20여명 단원들이 누리길군악 장단을 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풍물을 치는 모든 이들이 흥에 빠져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달산면 마을 풍물단이 이렇게 풍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이 벌써 7년째라고 한다. 풍물 전수를 하고 있는 정준호 선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추켜세우는 겸손을 풍물의 기본 정신으로 강조한다. 또, 장단을 마음 다스리듯 쳐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풍물을 치는 서로의 눈빛과 몸짓이 예사롭지 않다.



풍물 소리에서 끈끈한 정이 느껴지는 달산면 마을 풍물단.  
 풍물단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풍물을 하니깐 살맛나고 행복하다'고. 단원들의 풍물에 대한 애정은 하나된 소리에서 잘 느껴졌다.  
 앞으로 달산아리랑 노래처럼 풍물로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남정

남정 마을 풍물단은 시작한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프로급이다. 한 장단 한 장단 배우는 태도가 진지하다. 아직 기초 단계이지만 많은 연습량 덕분에 길놀이에 능숙해졌다. 남정 마을 풍물단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업인, 귀촌인들이 의기투합하여 풍물로 화합하고 지역에 봉사하고자 결성되었다.

풍물을 전수하는 정준호 선생은 항상 강조한다. '풍물은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라 다함께 즐기는 예술이라 조화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궁 하나, 따 하나의 몸짓에도 정성과 진심이 들어가야 진정 신명나는 풍물이 된다고 지도하고 있다. 풍물단원들도 기량의 발전과 함께 풍물 정신을 제대로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더욱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아직 시작 단계라 얼림굿, 휘모리, 자진모리, 굿거리로 기본기를 다지고 있지만 향후 남정면 풍물단 만의 특화된 풍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과 포부도 갖고있다. 지금의 노력과 열정이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

‘함께 마음을 맞추고, 몸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어야 제대로 된 장단이 나오고 진짜 풍물이 된다.’ 단원들이 늘 몸과 마음에 새기는 금언이다.



story 3

작은 것들이 모여

중심을 이룰 때



# 회의

11월 8일 성공적인 퍼레이드 개최를 위해 9개 읍·면 면사무소 대표자와 마을 주민 대표들이 모였다. 먼저 퍼레이드 일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퍼레이드 구간과 구간별 주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좁은 길이나 차량이 다니는 길 그리고 빨리 지나가야 하는 길 등에서 안전을 우선시 하자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다. 또한 9개 읍·면 면사무소에 주민 이동용 버스나 식사, 보온 물품 등에 대한 협조 건의가 이어졌고 더불어 풍물패의 상징 깃발, 개인 장갑 등 풍물패가 준비해야 할 물품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는 9개 읍·면 풍물패 대표자 모두가 처음 함께 모이는 화합의 자리였기에 더욱 뜻 깊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영덕 주민들의 풍물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민요 특강과정

7월부터 정해진 강사의 민요 특강이 진행되었다. 강구면을 시작으로 영해면, 창수면, 병곡면, 지품면, 축산면 등 각 마을 풍물단을 돌며 민요 수업이 이루어졌다.

첫 시간에는 시김새를 살려 노래부르는 법, 떠는 소리, 꺾는 소리의 시김새를 연결해서 부르는 방식을 배웠다. 그리고 배운 것을 토대로 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 아리랑을 불렀다.

두 번째 시간에는 밀양아리랑을 중심으로 장구 장단을 직접 치며 노래했고 메기는 소리의 가사를 만들어 직접 불러보기도 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제주민요 <너영나영>의 시김새와 특징을 배우고 시김새를 살려 노래를 불렀다.



# 팽과리 특강과정

11월 25일, 12월 2일 팽과리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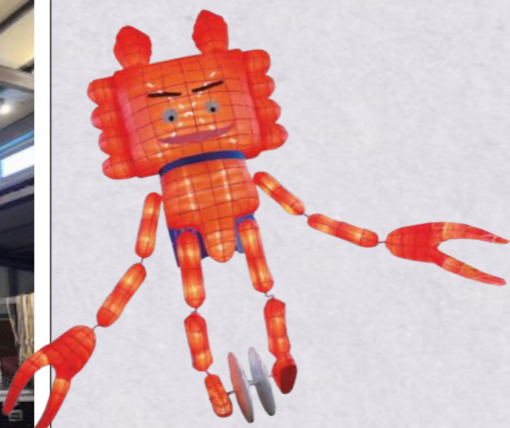


story 4

가치를 더하는 작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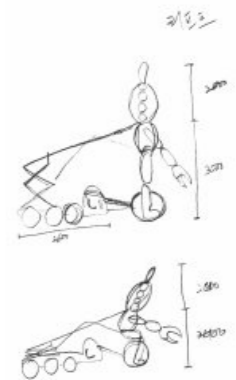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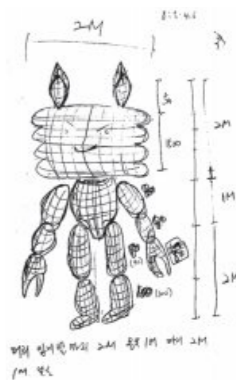


## 이그나이터 페스타 참여 인형 제작 과정




### 1. 대형 인형 제작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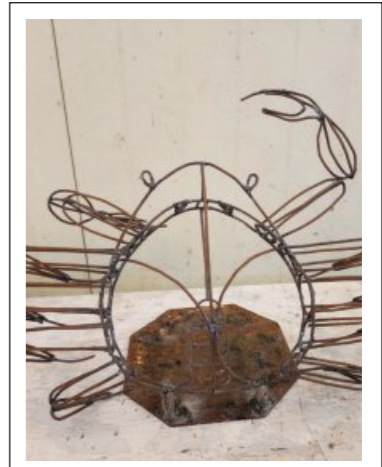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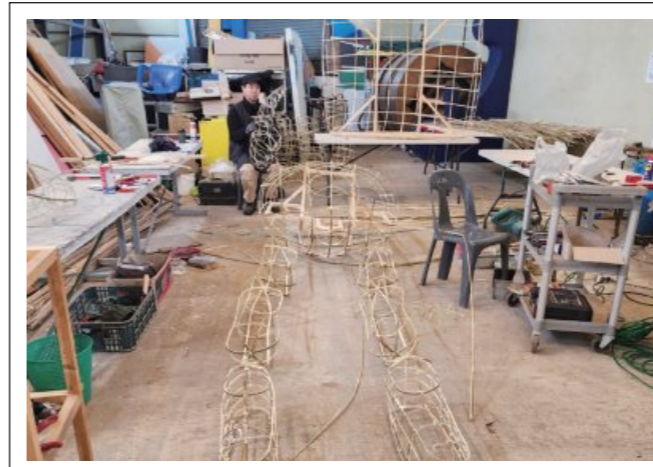
11월 26일 : 대형 인형 제작 용역업체와 대형 인형 전문가,  
재단 예술진흥팀 팀장 참여 하에 제작회의



## 2. 인형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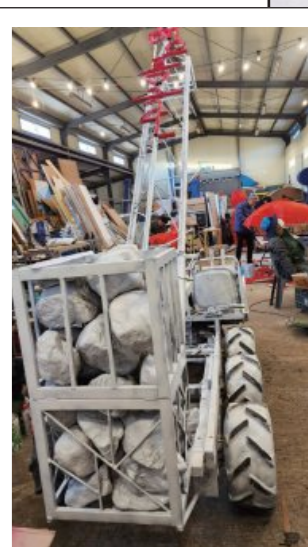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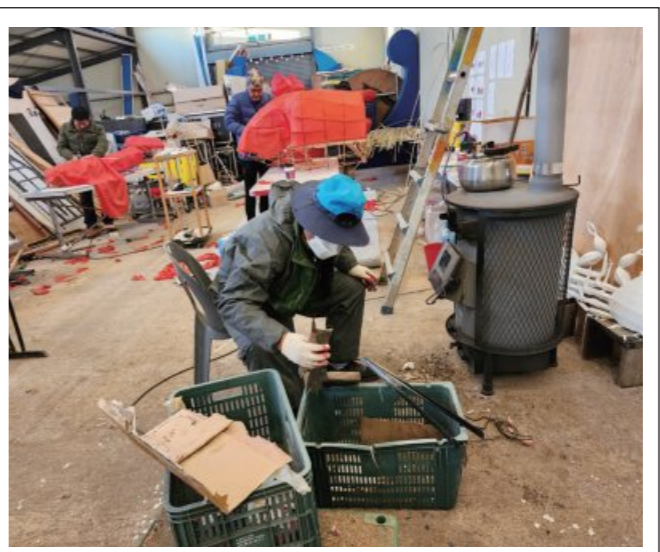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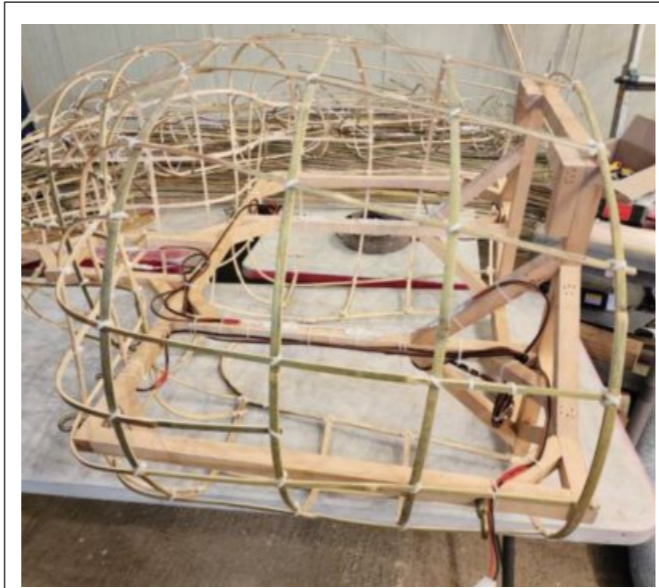
9개 읍·면 움직이는 대형 인형 퍼레이드 '이그나이터 페스타'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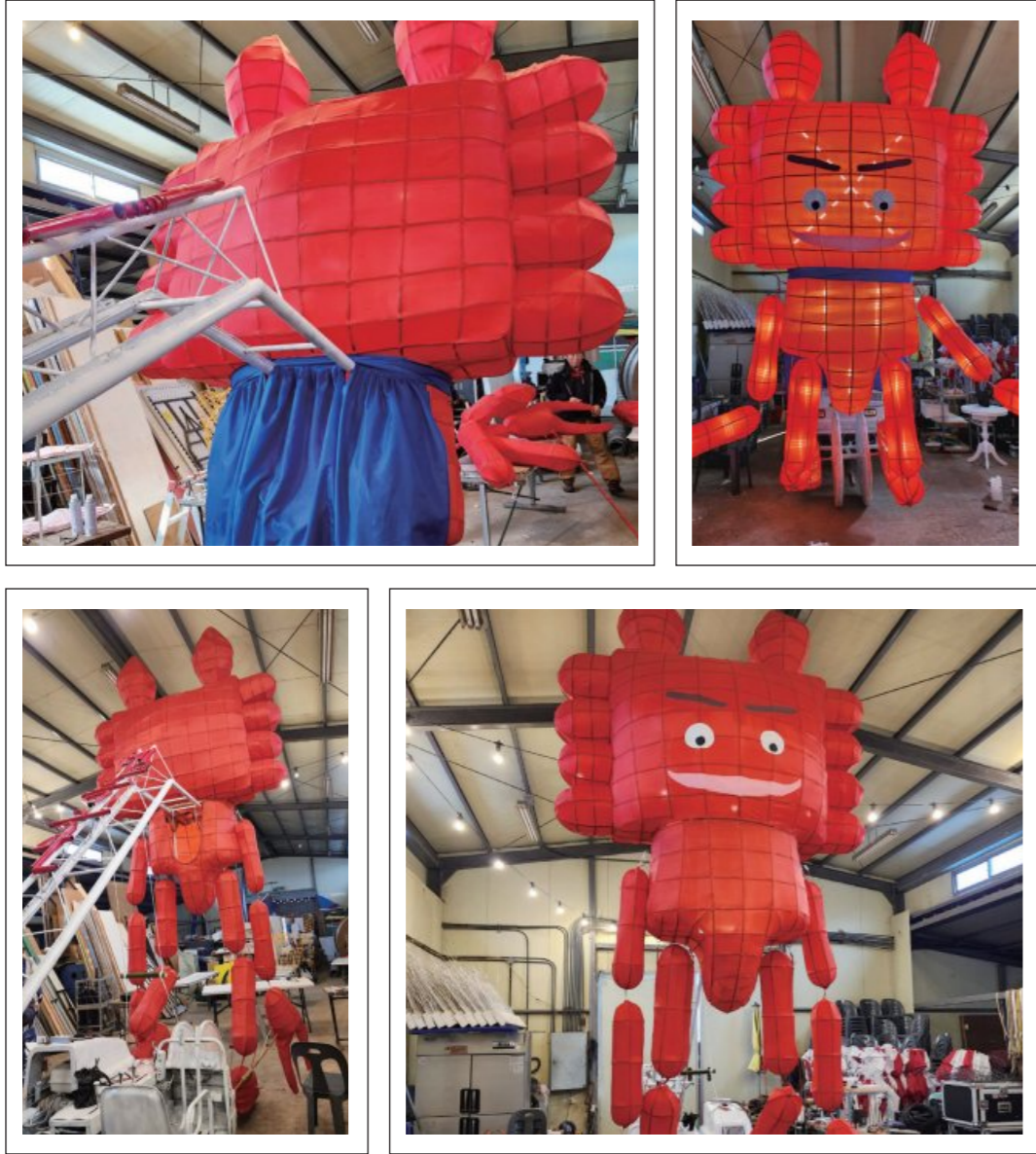
 인형 창작 과정 1 : 12월 9일



인형 창작 과정 2 : 12월 10일~17일

인형 창작 과정 3 : 12월 18일~19일





Story 5

축제로 어우러지다



# 차유대게원조마을 기원제

## 차유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내력

고려29대 충목왕2년(1345년)에 정방필 초대 영해부사가 부임하여 관할지역인 차유마을에서 잡은 게의 다리 모양이 대나무와 흡사하다 하여 '대게'로 불렀고 차유마을의 대게는 왕에게 진상되었다. 이에 영덕군은 1999년 차유마을을 '영덕대게원조마을'이라 명명하고 표지석을 세웠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영덕대게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기원제가 영덕대게의 원조, 차유마을에서 열렸다. 영덕대게의 참맛과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해 1시간 여 진행된 기원제는 차유마을의 대게 씨앗게를 예술화하고 동해안별신굿 중 용신놀이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5대 오방기를 달고 선창가를 도는 오방 선박 퍼레이드와 대게 씨앗게 전달식은 영덕대게 원조마을의 정통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 이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유마을과 축산면 주민들의 자부심을 확인해주었고 영덕대게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는 신호탄이 되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화합의 축제  
거리 퍼레이드





기원제 후 270여명의 9개 읍·면 풍물단과 퍼레이드 전문 집단 한국인형극협동조합, 전통연희단과 영덕대게 캐릭터인 덕이대장 대형 인형 등 350여명의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강구 대게거리에 모였다.



신정이포 오해는  
한국의 전통문화

豊春天下

세계

세계

세계대게직판장  
Our Season Snow Crab Direct Outlet





이색적인 거리 퍼레이드를 즐기기 위해 주변 상인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모두 모여 눈과 귀를 집중했다. 퍼레이드에 참여한 9개 읍·면 풍물단은 반년 이상 연습 해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흥겹게 타악을 울렸다.

영덕대게를 캐릭터화한 '덕이대장' 거대 인형이 선두에 선 강구대게거리 퍼레이드는 마지막 종착지 해파랑공원에 집결했다. 9개 읍·면 풍물단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모두 모인 해파랑공원은 그야말로 신명나는 대화합의 한 마당이 되었다.

story 6 동맹매기, 조포매 퍼다



## 너머를 보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문화도시 영덕 9개 읍·면 마을문화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마무리 된다'라고 생각하자  
7개월 간의 긴 여정이 떠올라 새삼 몽클한 마음이 든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시간의 강에 올라타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이번 사업도 다르지 않았다.

9개 읍·면의 스토리텔링을 위해 모이고  
대형 인형을 제작했던 과정들,  
반년 이상 매주 꾸준히 진행되었던  
마을 풍물단의 수업 과정들  
그 사이 사이 이루어진 크고 작은 일들.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모두가 영덕에 살고 있는 이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빚어낸  
주옥 같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주민들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사업은  
영덕 주민들의 한바탕 축제였다고 감히 말해본다.

비단 이번 사업은  
마을 풍물단이 결성되고 단원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마을의 이야기를 원형으로  
탈장르화 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데만 그치지 않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화합과 존중의 시간은  
영덕의 9개 읍·면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 해설을 듣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야구선수 요기베라가 남긴 명언이다.

영덕 마을문화 활성화사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이 마무리가 또 다른 시작의 발돋움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홍예 취하다

공물로 하나 된 9개 읍·면  
영덕 주민들의 이야기

발행일 2023.02.03

발행처 영덕문화관광재단

편집 취미경

사진 김훈

디자인 이보옥

[2022문화도시 조성사업\_영덕 9개 읍·면 마을문화 활성화 사업]

주최  영덕군

주관  영덕문화관광재단

